



양계 안테나

홍보팀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확대 및 품질고급화 기대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지난 2월 14일부터 닭도체(통닭)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은 이미 지난 2003년 6월부터 신선육인 통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이번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양계산물의 등급제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닭고기 도체등급사업은 (주)하림을 비롯해 4개 도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등급제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참여부족으로 그 처리 물량 또한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이고, 수수료 부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숙제로 남음에 따라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닭고기 중 부분육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닭도체(통닭) 등급 판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되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의 향방이 점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년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는 농림부 고시를 통해 제도화시켜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등급판정사의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닭고기 등급판정을 소개하는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닭고기 등급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등급판정은 대분할육(가슴, 다리, 날개), 소분할육(가슴살, 안심, 넓적다리살, 북채, 봉, 윙), 추가가공육(절단육, 발골육, 껌질제거육, 발골·껌질제거육, 서절육) 등으로 나누어 각각 1+등급과 1등급으로 등급을 분류하며, 등급판정사에 의해 샘플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응은 내심 기대에 차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및 공공 사업장의 닭고기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닭고기의 소비확대로 외국산 닭고기의 시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 다만 등급판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만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작업

의 자연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량이 늘어날 경우 등급판정사들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대정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외국닭고기의 부분육 시장이 국내산으로 대체되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국내 닭고기 산업이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등급제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고급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저난기 시대에 대비하자 계란 우수성 홍보 강화에 중점을

최근 난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채린업계가 활기를 찾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사육수수가 감소한데다, 지난해 여름 혹서에 의한 종계의 생산성 저하가 아직까지 계란생산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게 오른 계란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빠른 적응을 보이면서 예전의 소비량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고가의 계란가격이 형성되면서 계란상인들은 현찰을 주지 않으면 계란을 구하기 힘들다는 유통상인들도 있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노계출하지연 및 환우계의 증가로 인해 계란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지속적인 계란소비 활성화와 차후 불황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계란소비량은 1인당 1년에 180개정도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330개, 미국의 250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수치이다. 다행히 아직도 계란은 타 식품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 준다면 우리나라로도 머지않아 200개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져온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고개를 들것으로 보이면 서 차후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닭의 해를 맞이하여 닭과 관련된 방송들이 종종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 양계산 물에 대한 소비홍보도 함께 방송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모 TV에서 방영된 계란에 대한 실험 결과 계란을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획기적인 사실이 방송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과거 1일 1개정도로 계란섭취를 제한했던 것을 오히려 콜레스테

롤의 섭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란소비를 권장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선입견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었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듯이 언제 생산비선 이하의 난가가 형성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불황에 대비한 사전 작업으로 자조금의 정착, 수수조절에 의한 안정된 채란산업 확립, 질병, 방역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현명함을 발휘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수입 가속화 움직임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총 23,723톤으로 2003년도 수입물량인 81,992톤의 28%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2,763톤, 3,905톤이 들어왔고, 금년 1월은 4,681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년 닭고기 수입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1월에 수입된 닭고기는 덴마크산이 3,219톤(68.8%)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프랑스(754톤, 16.1%), 영국(708톤, 15.1%)순으로 나타나면서 2003년 이전 태국, 미국,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패턴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부위별 수입실적을 보더라도 다리가 2,991톤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날개가 1,609톤으로 36.1%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에서 집계한 지난해 11월까지 가금육 수입통관실적에서 볼 때 평균 가격은 닭다리가 1.49불(약 1,564원), 가슴살이 1.71불(약 1,795원), 날개가 2.0불(2,100원)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납품되는 국내산 kg당 도매가격(닭다리 5,980원, 가슴살 5,350원, 닭날개 8,810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으며, 닭고기 가격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더욱 수입을 부추길 소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시장 정보는 전 세계 닭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1,500원~2,000원 사이에 육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언제라도 충분히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가까운 동남아 지역, 특히 태국 등에서 열처리 가금육이 수입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조만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사라지고 다시 정식적으로 수입이 될 경우 견접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앞으로는 FTA협정과 더불어 브라질 등 닭고기 수출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으로 맛있고, 신선한 닭고기 공급을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수입산 닭고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재**